

광주 문화인프라 최하위…속스러운 '문화수도'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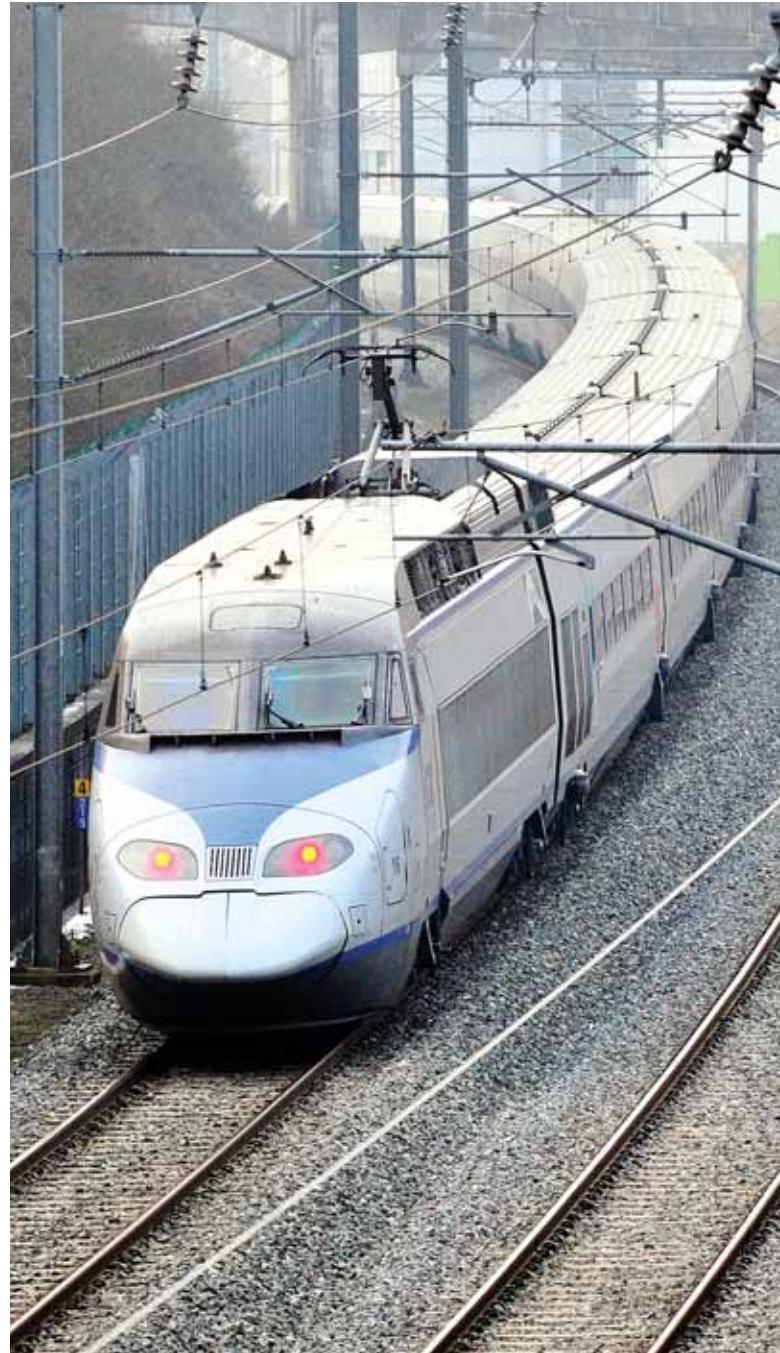
이랜드 광주진출 만만찮네 ▶8

kwangju.co.kr

명사의 서재-이주현 서울미술관장 ▶13

제19593호 1판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음력 9월 12일)

원전 이어 KTX까지…'짝퉁 부품' 무더기 납품



15일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KTX에도 부품 납품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겸찰 수사결과 드러나면서 국가기간시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3~2004년 프랑스 알스톰사가 설계·제작해 코레일이 인수,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KTX.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재고품→신품, 국산→수입산 위·변조 '뇌물' 코레일 임직원·업자 14명 기소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KTX에까지 사고 시 차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를 국가기간시설에 위조·변조 부품이 대거 납품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위조·변조 부품 입찰 및 납품 과정에는 어김없이 뇌물이 쓰였고,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납품된 문제의 부품이 어느 차량에 장착돼 있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첨단장비를 통해 위조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다 안전불감증, 도덕성 해이 등으로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가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용석)는 15일 사기, 공문서변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장과 공장장 등 납품업체 관계자 7명, 코레일 임원과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납품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6개 업체는 지난 2009년 3

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해 국산을 수입품으로, 재고품을 신품으로 속여 납품해 1400여만~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업체는 23개 품목 8246개의 재고품, 6개 품목 9275개 부품 등 모두 29개 품목 1만7521개를 '사기 납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 제작업체인 프랑스 알스톰사의 품질보증서, 송장(인보이스) 등의 서류가 위조됐다. 3개 품목 2607개는 같은 방식으로, 서울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에도 공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한빛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품업체들이 품질보증서 사본을 위조해 각 원전에 납품했다는 점에서 착안, 부품 구입 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는 KTX에 대해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신용석 특수부장은 "지난 2007년부터 KTX에 부품을 납품한 137개 업체

1620건의 수입신고필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였다"며 "문제 부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이로 인해 당장 사고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와 코레일 직원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납품된 부품은 체크밸브, 릴레이, 스레스트 너트·링 등으로, 현재 KTX의 제동장치에 사용되고 있다. 다만 핵심부품의 경우 코레일이 직접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비상제동장치 등이 있어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결과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파니를 만들어 납품대금 19억원을 가로채고, 85억원 상당의 하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포함하거나 65차례 담합으로 부품 단가 43억원에 이르는 입찰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 코레일 기술 1급 임원은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0만원, 기술 3급 직원은 업체에 부품구매계 획서 파일에 든 USB 장치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100만원을 각각 받아 행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허덕이고 있다.

각 공항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 12억4600만원, 여수 13억7700만원, 무안 11억3900만원 등 10억대를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적자 증가는 KTX와 뱃길, 도로망 확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와 여수공항 노선은 KTX 개통 이후 3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공항 이용객 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여수·무안공항 적자 매년 증가

광주·전남지역 지방공항의 적자폭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여수, 무안 등 지방공항 3곳의 적자폭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공항은 당시 2010년

16억9600만원 적자에서 2011년 20억 6500만원, 지난해에는 20억7400만원으로 적자폭이 꾸준히 늘었다.

여수공항은 2010년 73억8100만원 적자에서 2011년 75억5100만원, 지난해에는 82억1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무안공항도 2010년 69억2900만원 적자에서 2011년 78억5100만원, 지난해 79억2100만원으로 매년 적자에

전국 35개 영화·드라마 세트장 중에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10곳(28%)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나 국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관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건립한 취지와 달리 경제적으로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장기적 계획 없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촬영소를 건립한 것이 문제지만 이것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지역 영화·드라마 세트장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 전략

5곳 자체 수입으로 적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전남지역 영화·드라마 세트장 대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로부터 받은 '시·도별 영화·드라마 촬영장 및 세트장(35곳)' 운영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5개 지자체가 건립·운영중인 영화·드라마 세트장 5곳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완도군이 지난 2004년 180억원을 들여 조성한 '장보고 드라마 세트장'은 연평균 운영비가 4000만원인 것에

반해 자체 수입은 3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이 지난 2007년 건립한 '만남의 광장 세트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만남의 광장 세트장은 자체 수입이 전혀 없을 뿐더러 연간 방문객도 200명(무료)에 그쳤다.

순천시가 63억원(국비 8억원·지방

비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5년 조성한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연간 5억2400만원의 운영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자체 수입은 2억 1000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연간 방문 인원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여수 '아침 드라마 선택 세트장'은 세계영화전시장으로 임대하면서 사실상 드라마 세트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 '드라마 세트장'도 지난해 운영비로 4억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정작 수입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600만원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35개 영화·드라마 세트장 중에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10곳(28%)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나 국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관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건립한 취지와 달리 경제적으로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장기적 계획 없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촬영소를 건립한 것이 문제지만 이것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괴물’ 류현진
ML 포스트시즌
한국인 첫 승



‘괴물’ 류현진이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첫 포스트시즌 승리를 쟁이며 위기의 디저스를 구했다. (관련기사 14면)

LA 디저스의 류현진이 15일 미국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디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7전4승제) 3차전에서 701닝 3피안타 1볼넷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류현진의 시속 153km(95마일)짜리 '포속구'로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꼬在生活中, 데려온 3-0 영봉승을 장식하며 2연패 뒤 극적인 1승을 만들었다.

이 승리로 류현진은 빅리그 무대에 오른 한국인 투수 중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선발승이라는 위엄을 달성했다. 빅리그의 가을 잔치를 경험한 대선배 박찬호는 13경기에서 1패, 8경기에 나온 김병현(넥센)은 1패3세이브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디저스에게는 1승 이상의 가치

를 자진 짚지 승리였다.
디저스가 앞선 원정에서 책 그레이厄, 클레이턴 커쇼를 앞세우고도 2패를 당했던 만큼 이번 3차전은 팀의 운명이 걸린 경기였다. 특히 내셔널리그 디승 공동 1위(19승)이자 디비전시리즈에서 2승을 올린 카디널스의 에이스 앤 웨인리이트와의 맞대결이 전개되면서 ‘루키’ 류현진의 1승은 디저스스타디움을 열광시킨 승리가 됐다.

류현진의 완벽투로 흐름을 돌린 디저스는 16일 오전 9시 안방에서 NLCS 4차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G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대는 변해도
활자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시대가 변하고, 매체가 변해도
활자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읽기 습관으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여 보세요.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윤동주『별 해는 밤』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